

지방세 수입 851억...부산 이어 두번째 지역대학과 교육·연구 협력은 '시늉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로 본 광주전남혁신도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낮은 데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협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세 수입 증가세=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5억원 ▲2014년 2128억원 ▲2015년 744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부산이 4056억원, 광주전남이 851억원, 경남이 472억원 순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13년 19억5000만원에서 2014년 360억원, 2015년 85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도세(광역단체)와 시세(기초단체)로 구별된다. 도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포함되고, 시세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다.

지난해 기관별 지방세 납세실적은 한국예탁결제원(부산)이 36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가 76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중부발전(충남) 112억원, 한국도지주공사(경남) 11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 94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79억원 순이었다. 한국전력과 한국중부발전을 제외한 나머

열악한 생활환경·교육 여건

가족 동반 이주 저조 첫번째 이유 우수학교 유치·병원 설립 등 필요

지 기관 모두가 부산과 경남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한전에 이어 한국 KPS가 55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가족동반 이주 비율 낮은 이유는=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26.7%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중 3명만이 가족을 동반해 이주한 셈이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중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10개 기관에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되면서 이주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8.3%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각각 14.9%, 15.8%에 그쳤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치다.

가족동반 이주 비율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육복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혁신도시의 생활환

경·교육복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정부지원과제 추진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전 지원과제 중 ▲우수학교 적극 유치와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종합병원 신설 및 이전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조기희망직·명예퇴직 허용 등의 과제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대학 간 교육·협력 미흡=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가운데 지역대학과 교육·연구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10개(76.9%)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MOU만 체결한 기관이 절반인 5개로 가장 많았고, 인턴십을 맺은 기관은 3개, 합동과정은 2개였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사실상 협력 강도가 낮은 MOU체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인턴십 운영은 공공기관 업무체험을 위한 대학생 인턴제도 운영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설계 멘토링 등으로 MOU체결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협력 제도다.

또한, 합동과정 개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 육성하기 위한 계약 학과와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단순한 MOU체결 보다는 실제 지역 인재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턴십 또는 합동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이 자리 때문에... 원구성 기사움 20대 국회 개점휴업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7일 오후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차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장 내 국회의장석이 빈 자리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자유투표" 새누리 "여야 합의로"...국민의당 '先 선출' 중재안

제 20대 국회의원(院) 구성이 7일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여야 3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며 기사움만 이어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3당이 한 목소리로 강조해 온 '합치(協治)'가 실종된 상황이다.

민생을 쟁기겠다는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국회의장과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먼저 양보하라'며 살바 싸움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원 구성 결과가 향후 입법 권력의 지형을 좌우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좀처럼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이 3당 체제의 국회에서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선 제압'의 성격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며 새누리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유투표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자유투표 공세에 '황포'라고 반발하며 국회의장 선출은 관례대로 (여야) 합의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보면 국회의장은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해 여당이 맡았고, 그게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여당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민심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7일 안철수 상임대표가 '선(先) 국회의장 선출' 제안을 통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각각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국회의장 선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버티면 자유투표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장 뽑히는 날까지...국민의당 세비 반납

의총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 결정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원 구성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 조치가 된다"며 "기간은 6월1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세비 반납 방침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라는 것이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이 계속 적용받아야 하는가"라며 "선례가 중요하네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노동 무임금은 개인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정기일을 지켜 개원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해 원 구성 압박용이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의총에서 정동영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김동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치는 방안을 각각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만원씨와 모 매체가 비방·왜곡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야마구치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품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 후쿠오카 1급 4일 ₩499,000~
- ▶ [부관철회/특가] 북큐슈 미야자마,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함: 왕복 선박항공,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 1,499,000	출발일: 7/28, 8/11	트래킹	3박5일	₩ 1,499,000	출발일: 7/28, 8/11
	4박6일	₩ 1,649,000	출발일: 8/1		4박6일	₩ 1,599,000	출발일: 8/1
	4박6일	₩ 1,599,000	출발일: 8/6		4박6일	₩ 1,549,000	출발일: 8/6

불포함: 싱글차지, 호텔(2인실)/케르(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치기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 출발일 7/20~8/27(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품격] ₩1,14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품격] ₩1,2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품격] ₩1,2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향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 모집인원 0명
-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운전면허 소지자
-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쯤더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호텔/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